

완도군, 4년 연속 평생교육 활성화 우수군 선정

군민 중심의 실용적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높이 평가

완도군이 전라남도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주최하는 「2025년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은 평가가 도입된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평생교육 활성화 시·군은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사업 실적, 운영 현황과 운영 조직,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노력, 우수 사례 등을 항목별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군은 상·하반기에 평생교육 수요 조사를 통해 군민 중심의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제고했다.

올해는 160개 강좌를 운영, 2,933명이 수강했으며, 찾아가는 문해 교실 등 문해 교육 지원 사업으로 60개 교실을 운영, 528명이 등록했다.

이외에도 순천대학교와 대외 협력 사업을 통해 자격증과 인문학 등 다채로운 강의를 개설·운영했다.

또한 관계자들 간 협력과 소통을 위해 간담회, 회의, 실무 협의 등을 주기적으로 갖고, 내부 역량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역량 강화 교육과 워크숍 등을 개최했다.

군 관계자는 “평생교육을 말하면 완도군을 떠올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



했다. 한편 올해 완도군은 「전남형 평생 학습 지원 사업」을 통해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도비를 지원받았으며, 「교육부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1억 1천 5백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완도/장선우 기자



담양군, 2026년 주요업무 보고회 추진

국제명상센터 건립, 수해 복구 등 현안 사업 집중 점검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22일 군청 송강정실에서 정철원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담양군이 추진할 핵심 사업으로는 ▲호남 상생협력사업인 경마공원 유치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 ▲국제명상센터 건립 ▲마을로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 ▲돌봄통합 지원법 시행에 따른 향촌복지 서비스 확대 등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정철원 군수는 군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가사천·여사천의 개선복구 사업을 비롯해 담양읍과 고서면 일원의 하수도 정비 및 침수 예방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정철원 군수는 "2026년은 그간 쌓아온 성과들을 바탕으로 군민 한 분 한 분이 일상에서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모든 공직자가 원팀(One-Team) 정신으로 소통하고 협업해 더 큰 담양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순천시는 지난 19일 어울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 순천 관광의 날' 행사를 200여 명의 관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연말 행사나 형식적인 공식 행사에서 벗어나, 한 해 동안 순천 관광 현장을 지켜온 관광인들이 서로의 노고를 돌아보고 연결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관광업 종사자를 비롯해 외식·숙박·여행업 관계자, 마을호스트, 문화관광해설사, 관광 프로그램 협력업체,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등 순천 관광을 함께 만들어온

순천관광 현장에서 답을 찾다 '2025 순천 관광의 날' 성료

2025년 관광의 변화와 성과를 공유한 교류의 장

다양한 주체들이 폭넓게 참여한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우리 모두가 만드는 순천여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관광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오프닝 공연과 영상 상영으로 시작됐다.

특히, 공연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나의 순천」은 관광택시, 마을스테이, 해설사 등 시민이 주체가 된 관광 현장을 담아

내며 큰 공감을 얻었다.

이어 한 해 동안 순천 관광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으며, 공식 일정 이후에는 참여자 간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각자의 활동을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행정은 지원 역할을 했을 뿐, 실제로 순천 관광과 지역경제를 움직인 주인공은 현장에서 역할을 해주신 여

러분"이라며 관광 현장에서 애써온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사람들이 더 머무를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가고, 치유산업과 연계한 장기 체류 관광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026년에도 현장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관광 정책을 통해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고, '머무는 도시, 기억되는 순천여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순천/정성인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전국 최대 배추산지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배와 사과에 치명적인 과수화상병의 발생을 막기 위한 선제적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주시는 과수화상병 겨울철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약 10일간 배와 사과 재배 농가와 과수 전정당 등 2천 184명을 대상으로 상처 부위 도포제를 배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배와 사과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로 감염 시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실이 화상을 입은 것

나주시, 과수화상병 '겨울철 선제 차단' 총력

사업비 3억 3천5백만 원 투입... 도포제 1만 2982개 배부

처벌 검게 마르며 심할 경우 나무 전체가 고사한다.

특히 전염 속도가 빠르고 치료제가 없어 발생 즉시 과원 전체를 매몰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는 과수화상병이 궤양 부위를 통해 확산하는 특성을 고려해 겨울철 전정 작

업 시 궤양 발생 부위를 제거하고 도포제를 바르는 방제 활동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가의 관외 출입 시 소독, 외부인 농장 출입 관리, 발생 지역 농작업자의 출입 제한, 작업 도구 소독 등 현장 중심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안내하고 있다.

이번 겨울철 예방 사업에는 총 3억 3천 5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포제 1만 2982개를 배부했으며 과수 전정 시 병원균 밀도를 사전에 낮춰 내년도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과수화상병은 전북 무주까지 발생했으나 나주시는 아직 발생 사례가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전국 최대 배 생산지로서 단 한 건의 발생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 아래 겨울철부터 철저한 예방 관리에 나서고 있다.

나주/이명열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9일 남악 복합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에너지, AI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국정과제와 최근 정책 동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무안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는 민주연구원 배지영 연구위원을 초청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무안군의 시사점 : AI-에너지 전환 시대 RE100

무안군, 새정부 신산업분야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AI 전환시대 RE100 산단 등 핵심과제와 무안군의 대응방안

산단의 핵심과제와 '정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배지영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은 전력망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며, "호남 지

역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와 전력망 혁신을 통한 RE100 달성 가능성은 강력한 지역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군은 최근 전남도가 실시한 신규 산단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교통(공항, 철도), 정주 여건, 에너지지원 등

RE100 국가산단 조성의 조건을 고루 갖춘 최적지로 평가받았고, 전남도와 함께 '무안 분산 에너지 특화 국가산단'의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김산 군수는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자립마을, RE100 국가산단 등 정부의 AI, 에너지 신산업 분야 주요 사업들이 본격화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공직자들의 정부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무안군 계공

곡성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캠페인 전개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지난 18일 겨울철 급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에서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일상생활 행동수칙'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상생활 행동수칙'은 ▲손 씻기 ▲85°C 이상으로 익혀먹기 ▲물 끓여 먹기 ▲조리도구 구분 사용하기 ▲세척·소독하기 ▲보관 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으로 구성돼 있다.

군은 전통시장 상인을 직접 찾아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예방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한 개인위생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날것으로 섭취하는 해산물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당부했다.

겨울철은 기온이 낮아 식중독 발생 위험이 적다고 인식되기 쉽지만,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높아 오히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소량으

로도 감염될 수 있어 개인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인들은 배부된 홍보물을 꼼꼼히 살펴며 예방 수칙 안내에 적극 협조했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식품위생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으나 바이러스성 식중독 위험이 크다"라며, "조리 과정에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특히 해산물은 반드시 충분히 가열해 조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곡성군은 이달 초 '소통전담관리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 겨울철 식중독 예방 및 연말연시 위생점검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생교육과 시기별 점검을 통해 식품위생 관리 체계를 강화에 나갈 계획이다.

곡성/이정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찾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꿈꾸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자신을 사랑할 것
헛갈 같은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기억스레 생각해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면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평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팬잖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치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